

# 스포츠는 어떻게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가?

학과 : 국제지역학부 국제학전공

작성자 : 202410150 김태운

## <목차>

### <목차>

#### 1.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과거 스포츠의 역할과 현재 스포츠의 역할

### <본론>

#### 2. 스포츠 외교의 유형별 특징

#### 3. 스포츠 외교 사례 분석

- 사례분석
- 비교분석 / 가상적용

#### 4. 결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 1. 서론

최근 국제정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무력충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충돌 등을 포함하여, 무력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과 중국, 그리고 여전히 종전을 하지 못하고 대치중인 남한과 북한을 포함하면, 전세계는 현재 연쇄적인 무력충돌의 시기의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긴장감을 완화 시키는 여러 정책이 있지만, 스포츠가 그 정책에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 되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포함한 메가 스포츠는 여전히 전 세계의 축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화합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스포츠가 국제관계의 긴장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스포츠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칙 아래 경쟁과 협동을 수행하는 신체 활동으로 정의되지만,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스포츠의 여러 특징 중 사회성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발전하였다. 과거 스포츠가 신체 단련과 경쟁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현대 스포츠는 국가 간 교류와 사회 통합,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포츠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성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스포츠를 단순히 승패를 결정하는 경쟁 수단으로 인식하였다면, 오늘날 스포츠는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 스포츠 대회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는 행사이며, 정치적·문화적 경계를 넘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국가 간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스포츠는 공식적인 외교보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형태의 소통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치나 외교 협상은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적 요소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또한 스포츠는 국가 간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과 사회적 분위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 스포츠 경기는 단순히 선수들의 경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인식 변화와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스포츠를 매개로 형성된 긍정적 경험은 국가 간 심리적 거리를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외교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포츠의 사회성 확대는 스포츠 외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가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포츠의 사회적 특징을 바탕으로 스포츠 외교가 실제 외교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스포츠를 통한 관계 개선 효과는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스포츠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스포츠 외교의 유형별 특징

그렇다면 현재 스포츠 외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사회에서 적용되고 있을까? 본 필자는 스포츠가 외교의 접목되어 있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해당 사례들을 유형화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재 스포츠 외교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목적	주요 특징	대표 사례
갈등 완화 및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	국가 간 갈등 완화 및 대화 계기 마련	정치적 갈등 완화, 상징적 의미가 큼, 외교적 소통 창구 역할	인도-파키스탄크리켓 외교, 미 중 핑퐁 외교
문화·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	공동체 의식 및 문화적 유대 강화	공통 언어·역사·문화 기반, 장기적 협력 관계 형성	CPLP 스포츠 협력
국가 이미지·소프트파워 증진형 스포츠 외교	국가 이미지 향상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	스포츠를 국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 경제·관광 효과 동반	2008 베이징 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국제 협력 및 개발 지원형 스포츠 외교	국제 협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	교육·개발·평화 구축 중심, 국제기구 협력	UN 스포츠 개발 프로그램
스포츠 이벤트 중심 외교	국제행사를 통한 외교 활동 확대	국제적 관심 활용, 국가 정상 및 대표단 교류 활성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Murray, S. (2012). The two halves of sports diplomacy. *Diplomacy & Statecraft*: Grix, J., & Lee, D. (2013). Soft power and sports mega-events. *Global Society*를 바탕으로 재구성.

먼저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스포츠 외교의 유형인 갈등 완화 및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의 특징은 정치적 대립이나 외교적 긴장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해당 유형의 경우 갈등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스포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가 간 대화의 계기를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협상보다 스포츠를 통한 협상이 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 부담이 적고 양국 간 국가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으나, 단지 기반을 마련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문화,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의 경우, 앞서 언급되었던 CPLP의 스포츠 외교 사례가 해당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유형의 경우, 공통된 문화적 가치가 수반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본문에 언급되었던 CPLP 또한 포

르투갈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수반된 스포츠 연합이었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서는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가 필수 동반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이루어 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슷한 문화를 지닌 국가들간의 집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해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성 또한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었을 때 상당 부분 보장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공통적인 문화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유형은 실행 및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가진다.

세 번째 유형인 국가 이미지 및 소프트파워 증진형 스포츠 외교는 국가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거나 기존 하드파워 기반의 외교를 진행해왔던 국가들이 소프트파워 중점으로 외교를 진행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좋은 유형의 외교 형태이다. 해당 유형의 특징은 국가 단위의 국제스포츠를 개최하거나 스포츠 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객 유치,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다. 하지만 해당 유형의 특징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대규모 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유형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이자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인 국제 협력 및 개발 지원형 스포츠 외교의 특징은 스포츠를 통해 교육이나 개발 평화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다. 스포츠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개되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함께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의 단점은 변화의 과정을 관찰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만약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외교를 추구할 경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 유형인 스포츠 이벤트 중심 외교의 특징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즉,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 게임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외교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간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나 불편한 점이 없으나, 스포츠 이벤트가 중단된다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가진다.

이렇게 각 유형별로 가지는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는 해당 특징을 바탕으로 각 유형이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각 유형을 어떻게 외교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갈등 완화 및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의 경우에는 갈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선제적 조건이 걸린다. 선제적인 조건이 걸림에 따라 해당 외교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현재 타국과 갈등 상황이 없는 국가는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같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음에 따라 외교를 진행하는 것에 걸림돌이 있는 국가들 또한 제외해야 한다.

이는 곧 무력 충돌의 위기가 없는 국가임과 동시에, 국가 간 갈등 상황에 있는 국가가 해당 유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은 현재 휴전중이긴 하나 무력충돌의 위기는 적다는 점을 가지고있는 한국과 북한과 함께 상호간 무역을 통해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해당 스포츠 외교를 사용했을 때, 갈등 완화 및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의 한계점을 겪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문화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해당 유형의 경우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진다. 같은 언어나 역사적 사건을 공유한 국가일수록 문화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가 좋은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같은 문화권에서 스포츠를 통해 대회를 개최하거나 교류전을 시행할 경우,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같은 문화권에서도 경제적인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간 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스포츠 외교의 특성상 정치적 의지와 국민적 지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은 비슷한 효과를 위해 시행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국가의 소프트 파워 및 대외적인 국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이를 스포츠 행사를 열거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스포츠 기반을 지어주는 등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해당 과정에서 국가가 유의할 점은 외교 진행 과정에서 스포츠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소프트파워를 퇴보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 월드컵 자체만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우승, 한국의 16강 진출, 아시아 국가들의 선전에 힘입어 대회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성공한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을 건설하는 도중 건설업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외교 과정에서 역효과가 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유형의 경우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중점이 되는 유형의 외교다. 스포츠 이벤트 중심 외교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시기에 정치적 협상을 하기 위한 교두보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담거나 외교적 협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관심이 모이는 메가 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포츠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관심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유형들에서 선제적인 조건을 가지는 유형은 갈등 완화 및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와 문화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가 있다. 해당 두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외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는 외교를 하려는 두 국가간 갈등이 선제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갈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 완화 및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가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 - 파키스탄외교는 양국의 종교갈등이 동반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무역갈등을 포함한 양국의 체제갈등 또한 겹치며 갈등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유형은 갈등이 선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문화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외교는 같은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같은 역사나 언어같은 공통점이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만큼 해당 유형은 공통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분석한 두 가지의 유형은 선제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3. 스포츠외교 사례분석

#### 3-1) 사례분석

그렇다면 ‘스포츠가 과연 국가 규모의 외교 상황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할까? 본 필자는 두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현재 한국의 상황처럼 동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 두 국가의 사이 갈등을 촉발하게 한 것은, 종교 간 분쟁이다. 파키스탄은 헌법상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이며, 국민들의 96%~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반면 인도의 경우 국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를 믿는 상황이다. 해당 두 국가의 경우 무력 충돌까지 진행될 만큼 사이가 좋지 않다. 카슈미르 분쟁이 지속되며 두 국가를 포함하여 주변국인 아프가니스탄까지 안보 위협에 노출 되어있는 상황이다.

해당 두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한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두 국가는 크리켓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안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였는데, 두 국가 모두 크리켓이 국민스포츠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대통령인 지아 울 하크가 인도에 크리켓 경기를 관람하러 오며 해당 외교는 시작되었으며, 비공식 정상회담의 역할을 하며 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쏘았다. 그 이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크리켓 교류전이 신설되었으며, 양국의 관광이 증가하는 등 양국의 관계가 개선 되어가는 외교적 효과를 띄게 되었다. 이처럼 양국 간 공통분모가 있는 크리켓 종목을 활용한 스포츠 외교를 통해 2006년 카시미르 평화안이 도출되었고 추후 양국 간 관계악화 속에서도 양국 정상외의 크리켓 경기 참관으로 긴장 완화 및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갈등이나 긴장상태의 완화가 아닌, 앞으로의 협력체의 증진을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unidade dos Países de Língua Portuguesa)가 그 사례의 주인공인데, 해당 기구는 식민주의의 유산을 극복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출범했지만, 구성 국가들의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와 경제적 수준차이로 인해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이다. CPLP는 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적도 기니, 동티모르로 구성 되어있다. CPLP는 포르투갈어의 사용 촉진과 대륙을 잇는 연합 국가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고자 스포츠를 통해 젊은 층들과 기성세대간의 세대차이를 줄이고 젊은 미디어의 송출로 국가 간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에 스포츠를 동원한 것으로 분석한다.

스포츠 외교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선행연구 중 두 사례는 스포츠 외교의 명과 암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앞서 살펴본 인도-파키스탄 사례와 CPLP 사례는 모두 스포츠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스포츠가 수행하는 역할과 외교적 목적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두 사례는 스포츠 외교의 목적과 작동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CPLP의 사례는 문화·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은 정치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CPLP의 경우 포르투갈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였으며, 스포츠는 회원국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청소년 스포츠 활동, 국제 스포츠 행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스포츠 외교는 즉각적인 정치적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스포츠는 외교적 협상의 직접적인 도구라기보다 문화적 결속을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는 갈등 완화 및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스포츠를 활용하여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간 대화의 계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크리켓이라는 공통의 스포츠 문화를 기반으로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특히 두 국가에서 크리켓은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크리켓은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매우 높은 종목이며, 양국 국민들에게 강한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통 요소는 국민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정치적 대립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부담 없는 교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정상 간 경기 관람 및 스포츠 교류 확대는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비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CPLP 사례가 공통된 문화적 기반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협력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면,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두 사례는 스포츠 외교가 단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와 외교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스포츠 외교는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례에 따라 효과와 한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 외교의 효과와 성공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스포츠가 국제정치 영역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3-2) 비교분석 / 가상적용

해당 두 사례를 비교분석 했을때, 첫 번째 사례인 인도 파키스탄 외교는 갈등 관계 개선형 스포츠 외교라고 볼 수 있다. 양국의 관계를 호전시키고자 크리켓을 외교에 접목시켜 양국의 관계를 완화하고자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 작성된 다른 사례인 CPLP(포르투갈어 사용자 공동체)는 문화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라고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거나 공통적인 여러 문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외교를 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해당 두 사례를 단순히 스포츠 외교라고 통합하여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분석했던 것처럼 스포츠 외교는 그 속성이나 진행 내용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문에 제시

되었던 두 예시는 각각 다른 유형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가상 적용을 해보려고 한다. 가상적용을 위해 사용할 유형은 본문에 제시되었던 문화 \*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를 사용할 것이다. CPLP의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선제 되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해야 할 것. 둘째, 참여국 간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야 할 것. 셋째, 참여국의 정부 모두 해당 스포츠 외교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그 의지에 대한 참여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해당 세 가지 조건을 본 보고서에서는 선제조건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CPLP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인 외교의 진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문화 \* 공동체 형성형 외교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세 국가가 연간 스포츠 산업에 얼마의 예산을 쏟고 있는지 구분했을 때, 해당 표로 정리할 수 있다.

#### 국가별 스포츠 산업 유치액

중국	약 230~300억 위안 (약 4.4~5.8조 원)	약 0.02%
대한민국	약 1조 6,700억 원 (2025년 기준)	약 0.02%
일본	약 1,800억 엔 (약 1.7조 원)	약 0.03%

해당 표를 근거로 했을 때, 경제적인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수치상으로 중국이 스포츠에 돈을 일본과 한국에 비해 많이 쓰고 있긴 하나, 중국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국가는 문화 \*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에 큰 한계가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 경제적 조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조건 중 다음 조건인 문화적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세 국가의 전쟁또한 많았던 것도 사실이나, 그만큼 교류또한 많았으며, 세 국가 모두 한자 기반의 언어를 사용 한다는 점, 젓가락과 같은 문화적 공통점은 이미 많이 존재한다. 문화적인 요소 또한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인 국민들의 지지에서 한계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동아시아에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있다. “동아시아는 뭉치면 엄청난 힘을 가지지만 막상 뭉치지 못한다.” 각자 국가들의 힘이 모이면 더욱 국제정세에 유리해질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의 역사, 과거 전쟁의 역사 같은 각 국가들간의 악감정이 쌓여 Asian Paradox가 되었고, 아직까지 이 현상으로 인해 세 국가는 결국 문화 \*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제적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Asian Paradox가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 공동체 형성형 스포츠 외교 가상적용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 결론

스포츠는 오래전 과거부터 존재했던 인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가치이다. 스포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스포츠의 가치는 갈수록 다원화 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역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분석하고 외교가 스포츠와 함께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작성했다. 스포츠 외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과 예시를 바탕으로 하여 가상 적용까지 진행했다.

외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있다. 본 연구는 외교의 요인을 오로지 스포츠에만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사회에서는 정권의 특징, 상대국 정권의 특징, 최근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정권의 지지율이나 시기적 측면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해당 변수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서 필요한 후속 연구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국가 간 체제가 달라도 스포츠 외교는 가능한가?”와 “스포츠 외교는 어떤 변수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가?”와 같은 추가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보고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외교의 일환으로 스포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충분히 앞으로 적용될 요소가 많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상적용에서도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 중론이며 외교라는 것이 정말 복잡한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적용을 할 때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진행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적용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아시안 패러독스와 같이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갈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스포츠는 국가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비교적 낮게 만들며, 국가 간 교류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정부 간 공식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스포츠 교류는 비공식적 대화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외교 역시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항상 지속적이거나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포츠 외교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례 연구와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스포츠 외교가 일시적인 관계 개선을 넘어 제도적 협력과 상호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는 조건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축적된다면 스포츠는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Murray, S. (2012). The two halves of sports diplomacy. *Diplomacy & Statecraft*.
- Grix, J., & Lee, D. (2013). Soft power and sports mega-events. *Global Society*.
- Santos, N. (2021). The interplay of soft power and sharp power in sport diplomacy. *Journal of Global Sport Management*.
- Abdi, K., Talebpour, M., Fullerton, J., Ranjkesh, M. J., & Nooghabi, H. J. (2018). Converting sports diplomacy to diplomatic outcomes: Introducing a sports diplomacy model.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1(4), 365-381.
- Postlethwaite, V., Jenkin, C., & Sherry, E. (2022). Sport diplomacy: an integrative review. *Sport in Society*, 25(2), 361-382.
- Pamment, J. (2016). Rethinking diplomatic and development outcomes through sport. *Diplomacy & Statecraft*, 27(2), 231-250.
- (2019). From soft power to sports diplomacy: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discussion. *Place Branding and Public Diplomac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5). 2025 sports policy budget overview.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Japan Sports Agency. (2025). Annual report on sports in Japa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of China. (2024).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sports industry development.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of China.
- De Bosscher, V., Shibli, S., Westerbeek, H., & van Bottenburg, M. (2015). Successful elite sport polic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Sports Policy factors Leading to International Sporting Success (SPLISS 2.0) in 15 nations. Meyer & Meyer Sport.

